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2-28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2-28
2021년 02월 28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259755335](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259755335)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년 02월 28일

차례

1. [과연정부는저출산해결비법을모를까]	3
2. [동일하다고? 뺑치지마라]	4
3. [무노조선진경영이정말선진경영이었다니이건희당신은도대체...]	5
4. [미제는결국언제나미제다. 물론압제자들도.]	6

그리고여기또다른미국이있다. 바이든행정부는시리아에대한공습을허가하면서이란과연관돼있는민병대시설임이확신한다며, 이란에대고'조심하라'라는강렬한협박까지내세우면서군사행동에나섰다. 그들은미국인을보호한다는명분으로마음대로타국을침범하면서폭격을해대며, 그것더러'정의'라고포장함과동시에민주주의의확립을위한수단이라선전한다.

이란신정파소들과시리아아사드정권의쓰레기같은국가주의적-전제주의적면모를넘어미제는여전히제국주의적야욕을버리지못했다. 그들은인민에게서빼앗은무력을독점하여다른땅의인민을폭격하는데에사용하며, 그들이개입하는모든곳에서그곳에서투쟁하는인민들이자국의억압과압제에저항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그렇게해놓고선언제나실패를반복하며, 선거에서먹으면서'자유를배달'했다며자화자찬한다.

그렇기에우리는선거와정권을위해개혁적면모를표방하는그모습과, 타지의인민을마음대로폭격하는미제의표리부동한모습을규탄한다. 동시에미제의폭격에맞선답시고인민을억압하며국가주의적폭력을통해인민을짓누르는시리아등지의압제자들도한규탄한다.

그렇게모두가기를해서되는것이뭐가있겠냐고할수있을것이나, 압제는압제다. 자유에는편이없다. 미제와중동의압제자들도자유를억압하는, 혹은교묘히압제를개혁으로포장하는작자들일뿐이다.

” 미성소수자권리확대법안하원통과...고용 • 주거등차별금지” :
<http://yna.kr/AKR20210226080600009>
” 첫군사행동승인바이든, 이란향해” 조심하라” 경고” :
<https://m.news1.kr/articles/?4225597>

하고, SNS 허위계정을 만들어 접근해 정보를 빼내고, 그들을 직원과 기업의 보안에 대한 위협이라고 정의하면서, 혹여나 있을 노동조합의 결성과 파업과 시위를 방지하려 했다.

어디 맥도날드 뿐이겠는가. 본사 건물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모두 해고한 후, 복직 투쟁 60 일이 넘자 그 본사 건물만 빼고 다른 LG 소유 건물에서도 노동조합 하라는 안을 던진 LG 그룹. 수년간 노조 건설 시도에도 해고로 맞서다, 마침내 노조가 건설되려 하자 사명의료 노동조합에 대한 악선전을 내어놓은 아마존. 독일에 공장을 인수하자마자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날리고 노동조합과의 협약을 거부하는 패기를 보여준 테슬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글로벌 대기업이라는 곳들이 하나 같이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자발적 조직을 방해하려는 모습들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 않은가.

이건희 회장님은 참으로 선견지명이 있으셨다. 자본가들이 사회적 부인 생산수단에 대하여 자기의 사적 소유라 선언하는 한, 국가가 그들에게 부여하며 그 '소유권'을 옹위하는 한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적 투쟁과 대립은 필연적이고 지속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노조 간대립에서, 자본가들에게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건설하여 그 물적 기반에 따라 공고하게 단결한 노동조합"만큼 위협적인 것은 없다.

그리고 이 노조 간의 대립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다. 이 계급적 투쟁에서 자본의 승리를 위하여 노동조합을 사초제근하신 이 건희 회장님의 해안에서 금경의를 표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건설한, 본인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는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현장에서 의공고한 투쟁을 만들어 나가겠다.

” 노동자 기본 시급 인상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들 감사한 맥도날드” :
[https:// www.boanews.com/ media/ view.asp? idx=95196&kind=](https://www.boanews.com/media/view.asp?idx=95196&kind=)

4. [미제는 결국 언젠가 미제다. 물론 압제자들도.]

미국에서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이 미국 기준 25 일 통과됐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소위 '인권' 을 수호하기 위해, 그리고 개혁적 면모를 보이기를 위해 온갖 힘을 쏟아붓고 있다. 이번 성소수자 권리 확대 법안, 일명 '평등법' 또한 그런 취지에서 통과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비록 법률에 엄메인다는 한계가 있을지언정, 분명 성소수자들의 투쟁과 연대를 통한 성과임은 분명하다. 보여주기식이긴 하지만 말이다. 결국 구조적 폭력과 억압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1. [과연 정부는 저출산 해결 비법을 모을까]

지난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0 이하로 내려갔다고 한다. 개인이 누구와 사랑하고 아이를 가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 보기에 억지로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점점 극단적으로 출산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현 사회가 아이를 기르기에, 나아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통계적 근거이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개선할 점이 많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문구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만민에게 행복할 권리,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을까? 만민에게 복지를 보장할 방법을 모을까? 놀랍게도 정부는 민중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굳이 세종시를 예시로 들면서 분석하지 않아도 분명히 만민에게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해결비법을 알지도 실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대한 권력 기관인 정부는 군사력, 강제력, 행정력 등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본에의 지해야 하며 이의 상당량은 소수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다. 정부가 만민에게 복지를 보장하려면 단순히 부유한 중상류층에게 세금을 부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수 자본가들의 자본을 직접적으로 징수해야 하지만 자본가들은 이를 절대로 옹호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아무리 민중의 압박을 받아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진정한 주인인 자본가들을 거스르지 못하고 복지 정책을 한다면서 증세하고 이를 비효율적으로 낭비할 것이다. 이는 민주당, 국힘당 어느 누가 집권하더라도 똑같은 것이며 아무리 선량하고 민중을 위하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의원이 되어도 자본이 정부를 짓누르는 힘은 어마무시하므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즉, 민중은 정부에 더 이상의 존할 수 없다.

그러면 민중은 어떻게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만민에게 행복할 권리, 복지를 얻을 수 있는가? 단순화해서 설명하자면 민중이 국가와 자본가들에게서부터 자본으로 취급되던 생산수단과 토지, 자원을 쟁취하여 자주적으로 협의하여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분배해야 한다. 우선 민중 복지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협의하는 것은 민중이 모두 모여 논의해야 하는 것이기에 뒤로 제쳐두겠다. 그렇다면 민중이 실제로 국가와 자본가들로부터 생산수단과 토지, 자원을 어떻게 쟁취해야 하는가? 바로 민중이 단결하여 총파업 투쟁을 해서 자본가들에게 독점하고 있는 생산수단과 토지, 자원을 사회화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민중 없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자본가들은 무언가를 생산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므로 민중 속으로 돌아와 한 명의 노동자가 되거나 사회에서 추방될 것이며, 자본에 의존하던 국가 정부는 무너지고 민중이 자주적으로 직접 정치를 하는 새로운 사회가 세워질 것이다.

물론 현 사회를 살아가는 민중이 이야기를 들으면 애초에 어떻게 단결할지부터가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단순한 국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국가 정부들이 입을 모아 만들어 낸 상대에 대한 혐오, 멸시, 증오는 현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여성과남성, 이성애자와성소수자, 젊은층과중년층, 한민족과다민족, 경상도와 전라도, 배운자와못배운자, 수많은방면으로혐오와멸시는현사회에자리잡아민중을현혹한다. 현혹된민중은서로가얼마나다르고그다름이얼마나틀렸고역겨운지를설도한다. 그러나그렇게서로간에혐오를열변해도민중은같은인간이다. 매해편히자고편히먹고편히쉬고싶으며자신이좋아하는취미를종종즐기고싶어한다. 자신이아프면누군가보살펴주는이가있으면좋겠고사랑하는이가있으면그사람이건강하고해를입지않기를바란다. 이런공통점이있다는것을잊지않고여태겉혐오해왔던다름을직시하면그다름이왜존재하는지이해할수있게된다. 국가들이만들어낸혐오에현혹되지말아야한다! 단결한민중은패배하지않는다!

” 지난해인구첫자연감소…한해출생아 20 만명대로”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25376>
 ” 서울의 2 배…출산율 1 위세종시의비법은?”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099622_34943.html

2. [동일하다고? 뺨치지마라]

최근통계청이발표한 2019 년직장인평균소득조사에의하면” 여성직장인 평균소득은 236 만, 남성은 360 만원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여성이남성 예비해월 124 만원가량의임금을적게받고있는셈이다.

한편, 여기 2010 년부터지금까지 10 년여를싸워오고있는노동조합이있다. KEC, 임금속노조구미지부 KEC 지회의이야기다. 자세한투쟁의내용을줄줄이늘어놓지는않겠다. 그이야기는아래참세상의기사로갈음한다. 다만, 이 KEC 는채용시부터여성들” 무조건한등급낮은최하위직급으로채용한다.” 더불어”1988 년이후입사한직접생산부서노동자가운데여성은한명도관리자직급으로올라가지못했다.” 이렇게벌어진직급의차이는고스란히임금의차이로이여지는데, ” 월 33 만원에서 56 만원까지” 의임금격차가그것이다.

가끔넷상에넘쳐흐르는여성혐오적, 여성의노동에대한혐오적발언들을살펴보고있노라면기가찰정도이다. 이만하면여성들의임금도남성과균등한수준까지향상되지않았느냐고한다. 아니다. 여성들이남성들보다위험한노동에기피하니당연히임금에서차이가있을수밖에없지않느냐고한다. 아니다. 여성들도남성과동일한생산라인에서서일을한다. 하지만단지여성이라는이유하나로승진을하지못하고돈을덜받아야만한다. 여성이정말로남성에비해’ 덜위험한’ 노동을하기를원하는가? 그렇다면언제떨어져터져죽을지모를, 언제감전당해타죽을지모를, 언제위에서췌덩이가떨어져갈려죽을지모를, 언제높은곳에서떨어져운이

나쁘면평생을병상에누워서, 운이좋으면머리가터져죽어야하는그일터로다시돌아가겠다고 35 년여를싸우고있는김진숙은무엇이란말인가.

눈가리고아웅하지말자. 지금도여성은남성에비해부당한차별을일상적으로감내하며살아가고있다. 비단임금에서의문제만이아니라생활전반에걸친총체적인문제이지만, 이모든것의중점에자리잡고있는경제적인문제를무시할수없기에우선경제측면에서의이야기만을여기남겨놓는다. 눈돌리지말자. 모르는척하지말자. 같은일을했으면같은돈을받아야한다.

” 女직장인, 男보다’124 만원’ 덜벌어”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r>
 ” KEC 10 년의투쟁, 그리고남아있는성차별”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68>
 ” KEC 성차별, ’ 관행이’ 저질렀다는검찰”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2641>
 ” 잔인한사람들, 잔인한정부… 김진숙을복직시켜라”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172221001

3. [무노조선진경영이정말선진경영이었다니이건희당 신은도대체…]

얼마전지옥으로돌아가신이건희회장께서, 선친의유지인무노조경영을승계-강화하여“선진경영”을행하실때의기억이아직도생생하다. 노조건설을시도하던노동자들의전화라도감청하며조직을예방하고, 겨우만들어진조직이있으면대표자에게돈을줘주며회유하고, 회유에넘어오지않으면해고하고, 그래서싸우다죽으면혹여나그룹이육먹을까빈소를침탈하여시신을탈취하던그모습이아직눈앞에아른거리는듯하다.

이건희회장이이러한경영을“선진경영”이라고주장하셨을때, 솔직히비웃었다. 유럽에진출해서도무노조선진경영을이어가려다영국노동청에게영국에노조없는기업은필요없으니가라는통보를받는것을보았기에더욱그러했다. 하지만드디어시대는이건희회장을따라잡았고, 그분의“선진경영”이새로운글로벌스탠더드가되는모양이다. 말그대로다국적기업의상징이라고할수있는굴지의글로벌기업, 맥도날드가, 자사노동자들의조직을막기위해회장님의“선진경영”과같은기법을도입한것이밝혀진것이다. 맥도날드는자사직원들을감시